

# 세계정기항로 취항 정기선 57% 기항시간 준수

## 이들 선박 중 43%는 24시간 이상 기항 지체돼

세계정기선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선박 중 43%가 기항 예정보다 하루 이상 지체되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rewry의 조사결과를 게재한 KMI 지구촌 해양수산 최신호에 따르면, 23개 동서항로 및 남북항로에 투입된 3,300척의 컨테이너선을 조사한 결과, 57% 가량이 정해진 시간 안에 기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3% 중 22%는 하루 늦게, 7%는 이틀, 그리고 12%는 사흘 이상 늦게 기항했다는 것이다.

주요 동서 기간항로 선사 중 기항시간을 가장 잘 준수한 선사는 AP Moller-Maersk의 Safmarine과 에버그린의 Hatsu Marine, 그리고 Maersk Line으로 조사된 데 반해 Mediterranean Shipping과 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는 기항시간을 가장 지체한 선사로 조사되었다.

또한, 63개의 국제정기선사 중 예정 기항시간의 60% 이상을 준수하는 선사가 16개사에 불과하여 아직도 기항시간의 신뢰성(reliability)이 정기선 운영에 있어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신뢰성이 높은 항로는 태평양항로, 아시아-인도-중동항로, 북미-하와이-괌항로, 그리고 남미의 동서안과 유럽 및 북미항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신뢰성이 낮은 항로로는 유럽-아프리카항로, 북미-아프리카항로, 그리고 유럽-캐리비안-중미항로로 나타났는데, 4일 가량의 지체가 정형화된 항로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항 지체는 아프리카 항만의 혼잡과 같은 항로별 특수 여건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항로에서도 선사와 화주에 따라 신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올들어 아시아역내항로 컨테이너물동량 8% 증가

올들어 아시아역내 컨테이너물동량이 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역내항로 취항 주요선사들이 정리한 금년 1-4월 컨테이너취급량은 329만5,000TEU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건화물물은 8% 증가한 315만6,000TEU, 냉동화물물은 5% 증가한 13만9,000TEU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일본 관계항로에서 수출이 9% 증가한 63만TEU, 수입은 9% 증가한 85만TEU 등 수출입 모두 거의 두자리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의 컨테이너 수출물량 가운데 남중국항이 40% 증가한 5만TEU, 북중국항이 24% 증가한 15만TEU, 베트남항이 23% 증가한 1만6,000TEU 등으로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의 경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증가했다. 남중국은 18% 증가한 10만TEU에 달했고, 북중국은 17% 증가한 29만TEU, 베트남은 21% 증가한 2만TEU 등으로 모두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